“해양치유·해양바이오…해양산업 새 지평 열겠다”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 8기 1주년 ‘정책 토크 콘서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 첫 발
해양치유센터 9월 개관…국립난대수목원 등 현안 속도

“오는 9월 문 여는 해양치유센터 등을 기반으로 해양치유관광의 지평을 완도에서 열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최근 완도읍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연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남은 임기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신 군수는 이날 지역민 500여 명이 참석한 정책 콘서트에서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 복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완도군은 지난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2028년 개관 목표)에 성공하면서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웰니스 해양관광 도시’ 조성의 첫발을 뗐다.

신 군수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기후치유, 문화치유센터 등 해양치유 산업 기반시설이 오는 9월 문을 열면 완도만의 특화 ‘웰니스 치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완도에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해양문화치유센터와 해양치유공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해양치유 관련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해양치유산업 기틀을 다져왔다.

‘해양치유’란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한다. 완도군은 지역민 건강을 지키고 관련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해양치유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생물 생산 등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지난 2017년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완도에서는 해양 치유의 주요 활동인 노르딕 워킹(지팡이 짚고 걷기)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립난대수목원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치유 관광 중심지 조성에 성큼 다가갔다.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도 어촌 경제 성공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 신 군수 생각이다.

완도군은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 해양바이오 연구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해양바이오 소재의 표준화·국산화를 위한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도군은 서남해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완도군은 ‘K-웰니스 브랜드 대상’과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공모전 최고상’ 등을 받으며 해양치유 분야 성과를 인정받았다.

완도군은 미국 등에서 해외 수산물 판촉전을 열고 수출 협약을 지원하며 수산업 판로를 넓혀왔다.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하기도 했다.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완도군은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 각종 체육시설을 마련해 생활체육 증진에도 힘썼다.

완도군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농업유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 29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1880억여원을 사업비를 확보했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등 수상 건수는 29건에 달한다.

완도군은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완도~광주 고속도로·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조기 착공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 군수는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다”며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우리 군이 해양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교감, 소통의 폭을 넓혀 군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확인하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지역민과 나눈 의견을 반영하면서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의 길을 개척해 완도의 미래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우수과제 선정

‘섬 지역 내 야생화된 가축 피해 구제 건의’ 등 10건

영광군이 2023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를 최근 선정했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심사했다.

규제개혁위는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5명과 민간 전문가 7명 등으로 꾸렸다.

이들은 규제를 정비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 위촉식 뒤에는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지난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50일간 지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접수된 57건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과한 15건을 들여다보고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에는 ‘섬 지역 내 야생화된 가축 피해 구제 건의’가 뽑혔다.

우수 과제 3건에는 ▲농지대장 발급 때 경작 전체 필지 확인 가능한 출력물 시스템 구축 ▲어업경영체 등록 때 등록서류 제출방법 개선 ▲방문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 사진 파일 제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영광군은 이달 우수 제안자를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 꼽힌 규제 개선안들은 소관 실과와 협의한 뒤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청년문화공간 변신할 빈집 모집

개·보수비 최고 1500만원 지원

해남군이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로 탈바꿈할 빈집 등 유휴 공간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해남군은 두드림하우스 대상 공간에 선정되면 1곳당 최고 15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줄 방침이다.

이곳은 청년들이 모여 문화 활동을 하고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총 3곳을 선정한다. 해남군은 오는 2026년까지 면 지역마다 1곳씩 모두 13곳에 두드림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해남읍에는 청년 두드림센터가 문을 열어 맞춤형 청년 강좌가 열리는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청년들의 주거 및 문화·교류 활동을 확충하겠다”며 “청년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6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해리황(오른쪽 다섯번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이 박우량(오른쪽 여섯번째) 신안군수와 함께 안좌 퍼플섬 등을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유엔세계관광기구 미식포럼 개최 시동

UNWTO 아태 국장 초청

신안군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미식포럼 개최에 시동을 걸었다.

신안군은 최근 유엔세계관광기구 해리황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을 초청해 신안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와 국제미식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혜의 섬 관광자원을 활용해 1섬 1정원과 섬마다 미술관을 짓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은 그에 부응하는 음식문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주최하는 미식행사를 개최, 국제적인 미식 도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UNWTO 해리황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에 초청해 안좌 퍼플섬과 플로팅미술관 건축 현장, 자은 뮤지엄파크 등을 둘러보고 미식 행사 유치 등을 논의했다.

황 국장은 지난 2021년 UNWTO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한 안좌 퍼플섬을 탐방하고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이후 마을의 경제구조와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특유의 섬 지역 음식문화를 앞세워 유엔세계관광기구와 손잡고 국제미식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황 국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리황 국장은 “신안군의 문화예술정책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관광지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니 돕고 싶은 마음이 더 깊어졌다”며 협조 의지를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시, 공론화위원회 위원 공모

18일까지 주민대표 등 17명

목포시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주요 정책 사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7월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의제로 ▲노선 공영화(노선권 양도양수) ▲노선체계 개편(전면개편·부분개편) ▲운영체계 확립(준공영제·공영제·혼합형)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교통, 회계,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위원 17명은 오는 1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시의원 3명은 시의회에서 추천받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노선 공영화, 노선체계, 운영체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정책은 시 전체 정책 중에서도 중요도가 매우 높다”면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경쟁과 균형 잡힌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